

아시아 8개국 25개 도시 서울서 미세먼지 해법 고민

동북아와 동남아 전문가들 참석 이틀간 개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2018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동북아시아 4개국 18개 도시와 동남아시아 4개국 7개 도시 등 모두 25개 도시가 참여한다.

동북아 4개국 18개 도시는 중국의 베이징, 허난성, 지린성, 후난성, 구이저우성, 저장성, 하이난성, 텐진시, 충칭시, 지안시, 창춘시, 구이양시, 포산뉴시터, 홍콩, 일본의 도쿄, 기타큐슈, 후쿠오카,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이다.

동남아 7개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베카, 태에담, 베트남의

하노이과 하이퐁, 필리핀의 마리키나, 말레이시아의 멜라카 등이다.

각 도시 대표와 대기환경분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와 수원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이 참가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첫날인 4일은 김복호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구 환경보건 총괄책임자의 '대기오염: 시민건강의 최대의 위협' 기조연설과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의 '메가시티의 현재와 미래' 기조연설이 예정돼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교통부문과 생

활부문별 배출 저감방안에 관한 각 도시별,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방안이 발표된다.

5일은 한중일 주요도시 정부 관계자와 환경연구기관의 환경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자세한 행사 내용과 연사 정보는 제8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누리집(http://www.airforum2018.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2-6952-0653, airforum2018@kimexgroup.co.kr)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이번 포럼이 동북아 도시간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베트남 하노이 등 미세먼지 보살을 앓고 있는 동남아 도시에 미세먼지 관리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실천해 나갈 때 개선할 수 있다"며 "각 도시들에 적합한 다양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원순 "하루동안 휠체어 타고 대중교통 체험하겠다"

서울 저상버스 부족 지적에 직접 체험 즉석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하루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경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시장은 지난 달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에 이어 다시 한번 현장 체험에 나서게 됐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 다른 차원을 여는 이야기 행사에 참석,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는 문화진 청년위원의 발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청년위원은 서울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며 ▲버스기사에게 장애인 승객의 탑승 의사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저상 일반 버스의 규칙적 배차 ▲버스기사 대상 장애인 응대 교육, 저상버스 설비사용 관련 교육 강화 등을 박 시장에게 촉구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정말 구체적인 제안해줘서 감사하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다"면서 "이런 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루를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경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시장은 이날 행사장을 찾은 청년들에게 세대 인지적 참여 기회적 증대와 청년정부 구성 등 6가지를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대 인지적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체제를 전환하겠다"면서 "청년정부를 구성하겠다. 청년이 스스로 예산을 결정하는 청년정부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 서울시

실현하는 과정에서 청년기업과 마을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겠다"며 "청년기업들이 지역사

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SH공사 사장에게 1000세대 아파트를 제공하지고 제안했다"면서 "그러면 7000명 청년이 도시 많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확보되고 도시문제

해결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기업들이 지역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영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이 이를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결코 서울시민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다. 지역민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며 "이제 가을 때가 왔다. 지역형 뉴딜일자리 포함해서 전적인 상생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먼저 산 세대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가득하다. 노랗진 확임 고시원, 도서관에서 고군분투하고 월세 벌기 위해 밤 새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찌 편하겠느냐"며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들었다. 모퉁이 숨연할 정도로 뼈아픈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모두 발언에선 "강북 옥탑방에서 바라본 세상은 99대1 그대였다. 가게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침투해 마를 경계 장이었다"며 "휠터가 없어서 골목에 있는 스티로폼 위에 앉아 폭염 견디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청년들은 모두 지켜 있었다"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이재명 "신청사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실 확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9일 도청 청원경찰, 환경미화원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청 청소원, 방호원, 안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광고 신청사 휴게공간을 대폭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을 약속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도는 휴게공간을 애초 면적인

95.94㎡보다 4.7배가 늘어난 353.65㎡를 추가로 확보, 모두 449.59㎡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방호원 휴게공간 105.43㎡(신규) ▲청소원 휴게공간 300.29㎡(확대) ▲안내원 휴게공간 43.87㎡(신규) 등으로 꾸며진다. 안내원 근무공간은 인테리어 계획 때 추가로 반영한다.

방호원과 안내원의 휴게공간은 기존 설계에는 없었다.

도는 이와 함께 별도 샤워실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위치를 의무실과 상점 등 주요 편의시설과 주 출입구가 있는 메인 층에 배치하기로 했다. 도는 각종 편의 장비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청 청소원과 청원경찰을 만나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고용형태 구축, 청소행정 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환경미화원과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안전기준 등이 모두 미흡하다"며 "미흡한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거나 에어컨이 없는 계단에서 지친 몸을 쉬는 등, 특히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또 "육상 창고에서 쉬는 청소원과 방호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경기도 광고 신청사는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인천시, 광역시 최초 300만 시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각종 재난사고 발생 불안감 해소·삶의 질 향상

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상

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 있다.

또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이윤서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

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몽필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